

# 鄭澈 漢詩 世界觀 研究

김진욱\*

## 〈차례〉

- I. 緒論
- II. 現實 指向의 詩世界
- III. 自然 指向의 詩世界
- IV. 沒入과 超脫을 통한 省察의 詩世界
- V. 結論

## I. 緒論

鄭澈 文學에 커다란 影響을 끼쳤던 임억령, 양응정, 김인후 등은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 漢詩史의 巨星들이다. 鄭澈은 시인으로써 天賦的 才能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자질이 주위의 影響 속에서 갈고 닦아져 한국 한시의 質的인 向上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漢詩文學에 대한 평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남긴 漢詩는 賦 4편을 포함하여 767수나 되기에 그 양에 있어서도 방대하며, 작품 한 수 한수가 절조로써 그의 사물에 대한 認識과 形象化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漢詩文學의 美學的 特性을 考察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의 漢詩文學의 成立에 대한 背景을 살피고, 작품의 特性을 糾明하여 그의 文學적 世界觀에 接近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게는 그의 漢詩文學의 特性을 밝혀줄 것이며, 크게는 鄭澈 詩歌文學의 文學적 特性을 규명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漢詩文學이라는 특수성을, 詩歌文學이라는 普遍性의 테두리에서 統一시키고자 한다.

鄭澈이 國文 詩歌의 창작에 있어서는 卽興의이었고, 感情과 情緒의 發露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에 반하여 漢詩 창작은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창작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목적들을 크게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그의 漢詩文學의 特性을 고찰하고자 한다.

鄭澈 漢詩文學의 特性을 把握하기 위하여 그의 漢詩 작품을 類型別로 分析한 연구<sup>1)</sup>는 이미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圖式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작품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유형분석을 시도했던만, 사실상 소재에 따른 분류에 멈추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작품이

\* 조선대학교

1) 徐首生, 『松江文學研究』, 『韓國詩歌研究』, 螢雪出版社, 1970.

金甲起, 『松江鄭澈研究』, 二友出版社, 1985.

俞睿根, 『松江鄭澈文學研究』, 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85.

崔台鎬, 『松江文學論考』, 亦樂出版社, 2000.

指向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는데 未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여 작품의 내적 지향에 따른 유형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鄭澈의 漢詩가 추구하는 시 세계에 대한 인식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 II. 現實 指向의 詩世界

조선조 사대부에게 현실 지향이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垂直的 측면으로 忠으로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水平的 측면으로 交遊로 드러난다. 儒家의 宗主인 공자가 추구하였던 바는 道이며, 이것은 현실 속에서 삶의 자세인 것이다. 즉 儒家는 현실 세계의 價値論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집약한 五倫은 수직적 측면에서 君臣有義, 父子有親, 長幼有序를, 수평적 측면에서 夫婦有別과 朋友有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세계와 交遊한다. 鄭澈에게 漢詩 文學은 載道의 그릇이었다. 여기서 담아내야 할 道는 忠과 交遊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鄭澈이 현실 세계에서 追放당하지 않기 위해선 忠을 통한 寵愛와 交遊를 통한 자기 基盤이 필요하였고, 鄭澈은 끊임없이 現實과 文學 양편에서 이 둘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먼저 수직적 측면의 충을 살펴보자.

鄭澈은 끊임없이 政治 權力을 추구하였던 政治人이었다. 더구나 西人의 領袖로서 선조로부터 일기 시작한 黨爭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었다. 조선조의 모든 志士가 그러하였듯이 선비에게 있어서 정치는 개인의 榮達을 위한 것이 아니라, 儒學의 實踐이었다. 鄭澈에 있어서도 정치는 忠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것이다.

文學에 있어서 忠은 戀君과 憂國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鄭澈의 연군을 고찰하고자 한다.

夜酌移西檻 자리 옮겨 서쪽 난간에서 밤늦도록 술 마시는데  
春心繞北辰 봄 마음은 북극성을 돌렸네.  
明朝嶺東路 내일 아침 영동 길에는  
嵐翠濕衣巾 비취빛 이내 의관을 적시이리.

卜夜開深酌 밤을 가려 술 깊이 취해  
論懷對獨燈 외론 등불과 회포를 나누느니  
江南一千里 강남이라 일천리의  
消息杳難承 소식 듣기 어려워라.

<關東夜酌 二首 관동에서 밤에 술마시다><sup>2)</sup>

작품의 시작이 ‘夜酌移西檻’이니 술이 이미 거나하게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술자리를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자리를 옮겨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작품 역시 ‘卜夜開深酌’으로 시작되고 있다. 醉中眞談이랄까. 술이 취하니 선조에 대한 생각이 간절히 나는 것이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 선조에 대한 懇切한 忠情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선조와 鄭澈은 각별한 사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직한 성격이 평

2) 『松江集』 卷一, 續集.

소에는 이러한 戀心을 감싸고 있다가, 술을 마신 후에야 밖으로 드러나곤 했던 것이다. 鄭澈의 春心은 항상 北辰을 繞하고 있으며, 對獨燈하여 論懷하는 것이 江南一千里的 消息이었던 것이다. 鄭澈의 지고한 忠心<sup>3)</sup>과 그의 文學적 資質이 纖細하게 수놓아진 작품이다. 조선조는 임금과 나라가 동일시되던 사회이다. 그러므로 연군은 곧 우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鄭澈은 東西分黨의 시대를 살았으며, 壬辰倭亂이라는 史上初有의 外患을 겪었던 사람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 연군이 우국으로 昇華된 작품을 감상하여 보자.

壯士襟期一劍知 장사의 가슴속을 한자루 칼이 아나니  
聽潮樓上月明時 청조루 위에 달이야 밝고야.  
不報君恩不返國 君恩을 아니 갚으면 돌아가지 않으리니  
寧爲精衛繞南陔 차라리 정위새 되어 남쪽 변방을 휘감으리.

<聽潮樓月下作 청조루 달 아래서 짓다><sup>4)</sup>

작품에는 志操 있는 선비의 剛直한 忠심이 담겨져 있다. 선조에 대한 지극한 忠심이 우러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詩心이 정위새라는 傳說 속의 새를 통하여 形象化되고 있다. 정위새는 愚公移山처럼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더욱 悲劇的이고, 이러한 悲劇美는 悲壯美를 지니고 있다. 이 정위새는 鄭澈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素材인데 다음의 시 속에 정위새에 대한 鄭澈의 視覺이 담겨져 있다.

華表柱鶴何在 화표주의 학이 언제 있었던가  
秋雨冥冥秋草青 가을비 어둑어둑, 가을풀 푸르네라.  
千載一歸喧萬口 천년만에 한 번 돌아와 만 사람을 들썩이니  
城郭人民俱有情 성곽과 사람들 함께 有情이네.  
鶴亦不能無心否 학도 역시 無心이 안되는가  
來旣支離況死死 오기도 지리했는데 하물며 生死에서랴.  
曾聞丁也化爲鶴 일찍이 들으니 丁舍威가 학이 되고  
更見鶴復化爲丁 다시 보니 그 학이 다시 화하여 정령위가 되었다니  
爲丁爲鶴無乃勞 丁이 되고 鶴이 되는 것 차라리 수고롭나니  
不如一去終雲扃 한번 가서 구름빛장에 마침보다 못하리라.  
設使千載每一歸 설령 천년에 매번 한번씩 온다해도  
萬劫半在遼陽城 만겁에 반은 요양성에 있으리니  
安有眞仙不忘家 어찌 진선이 집을 잊지 못하여  
平分人世與天庭人世와 천상을 나누어 살겠는가.  
吾將沽酒遼陽市 나는 장차 遼陽市에 술을 사서  
大醉不省黃庭經 대취한 후에 황정경일랑 살피지 않으리라.

3) 충심이라는 어휘가 지니는 본래의 의미는 '지극한 마음', '다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충심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충심의 대상은 모두 선조로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 이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趙重峯丙戌疏曰鄭某按湖南, 冰壺自潔, 赤心奉公, 其許國, 念炳炳, 於聽潮樓之詩云云 조중봉의 병술년 소에 이르기를 '정모가 호남을 살필 적에 冰壺처럼 맑고 赤心으로 奉公하였으니, 그 나라 대한 경경한 일념은 청조루의 시에 있다고 하였다(『松江集』 卷一, 續集).

鄭澈은 新年이 되면 시를 지어 자신의 所望을 담아내곤 하였다. 鄭澈이 58세에 지었다는 다음 시를 보면 鄭澈의 연군과 우국을 알아볼 수 있다. 鄭澈은 이러한 新年祝을 매년은 아니더라도 자주 하였던 것 같다.<sup>6)</sup> 특히 신년에 나라와 백성의 安危와 太平聖代를 바라는 詩心이 뛰어나게 描寫된 다음 작품을 감상하여 보자.

<작품1>

新年祝新年祝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所祝新年掃犬羊 새해에 비는 바 오랑캐 쓸어내고  
坐使鑾輿廻塞上 임의 수레 변방에서 오게 하시어  
仰瞻黃道日重光 거듭 빛나는 黃道의 해를 우러러 보기를.

<작품2>

新年祝新年祝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所祝新年朝著淸 새해에 비는 바 朝廷이 맑아져서  
痛掃東西南北說 동서남북 봉당일랑 모두 쓸어내고  
一心寅協做昇平 일심으로 공경하고 협력하여 태평성대 지어내기를.

<작품3>

新年祝新年祝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所祝新年年穀豐 새해에 비는 바 새해엔 곡식이 풍성하야  
白屋更無民戚戚 초가집에선 백성에게 근심일랑 다시 없고  
丹墀再聽樂彤彤 대궐에는 느런느런 풍악소리 다시 들기를...

<작품4>

新年祝新年祝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所祝新年邦亂平 새해에 비는 바 나라에 난리가 평정되야  
湖海老臣歸故里 湖海의 늙은 신하 고향으로 돌아가서  
臥看梅蘂雪中期 눈 속에 매화 꽃봉일 누워서 보게되기를.

<작품5>

新年祝新年祝 새해에 비나이다 새해에 비나이다

5) 松江集, 卷一, 原集.

6) 新年祝이라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는 작품이 『松江集』에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卷一 原集에, 그리고 다른 한 편은 卷一 續集에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작품은 두 편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 외에도 동일한 제목의 작품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原集에 수록된 작품은 忠이 뛰어난 작품이고, 續集에 수록된 작품은 修身을 위한 작품이다. 아마도 속집에 수록된 작품 양상의 신년축이 일반적이었으며 그러기에 비슷한 내용 중 수작이 전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원집의 작품은 시대를 반영한 특수한 작품이므로 별도로 전해졌을 것이다. 신년축이라는 제목이나 작품의 형식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창작은 연례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所祝新年士志堅 새해에 비는 바 선비의 뜻이 굳어  
 夷險生死惟一視 평탄함과 험함, 죽음과 삶 이 모두를 하나로 보아  
 是非榮辱莫周旋 시비와 영욕일랑 주선을 마르시기를.

<新年祝 새해에 비나이다>7)

이 작품은 鄭澈이 58세 되던 해인 선조 26년, 1593년에 창작한 시이다. 當時의 時代的 狀況이 <작품1>에 잘 드러나 있다. 전구에 드러난 ‘임의 수레 변방에서 오게 하시여’가 癸巳年 신년에 가장 빌고 싶은 내용이다. 서울을 버리고 떠난 선조의 수레를 다시 오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시 속에 흐르고 있다.

오랑캐에게 쫓겨 서울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선조에 대한 애절함으로 시작된 시는 <작품2>에 이르러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東西分黨에 있지 않았나 하는 忖歎으로 이어지고 있다. 西人의 領袖로써 어찌 보면 동서분당의 책임이 큰 그로써는 새해에는 더 이상의 分黨的 行위를 하지 말고 ‘일심으로 공경하고 협력하여 태평성대 지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일심으로 공경하고 太平聖代를 지어내어 <작품3>에서와 같이 ‘초가집에선 백성에게 근심일랑 다시 없고, 大闕에는 즈런즈런 풍악소리 다시 듣기를...’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작품4>와 같이 이제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鄭澈은 이처럼 동서분당의 중식과 태평성대를 갈구하고 있다. <작품5>는 그의 文學的 특징 중의 하나인 調和와 超脫이 드러나고 있다.

鄭澈은 新年祝이라는 작품 형식을 빌어 修身의 지침으로 삼곤 하였던 것 같다. 진정한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다. 鄭澈이 이러한 忠心으로만 가득한 신년축을 하였던 것은 時期의 產物일 것이다. 즉, 선조와 나라의 안위에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생각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에 이러한 신년축을 한 것이다.

鄭澈이 自然으로의 歸鄉을 간절히 追求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작품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고, 그 이유는 세속적인 富貴榮華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선조에 대한 각별한 忠心이 그를 항상 현실 속에 잡아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의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니와 다음 작품이 특히 秀作을 이루고 있다.

畫省夜聽蓬瀛水 화성의 밤중에 봉영의 물소리 듣나니  
 手拏薇花拜靈脩 紫薇花(백일홍) 뽑아들고 임금께 절하고야.  
 鷄聲曉催紫雲闕 자운궐에 닭 울음 새벽을 재촉하고  
 鶴影秋孤明月洲 명월주의 학 그림자 가을에 외롭구나.  
 涓埃未報雨露恩 雨露의 은택은 먼지나 물방울만큼도 갚지 못하니  
 一約猶遲方外求 方外에서 만나자고 한 약속 아직도 더디네.  
 人間幸逢聖明主 인간에 다행이 성군을 만나지어  
 十年松江違白鷗 십년동안 松江의 백구와 어긋났구나.  
 奔忙羈跡陌頭塵 장안의 먼지 속에 분망한 나그네 자취  
 浩蕩前期沙上秋 호탕했던 예전 기약은 모래 위에 가을이네.  
 唐虞日月卽我朝 요순의 日月이 바로 우리 조정

7) 『松江集』 卷一, 原集.

玉節江東清發謳 玉節이 江東에 이르니 맑은 노래 일어나네.  
 寒湖鳥語曉送誠 찬 호숫가에 새도 전송하는 정성을 알고  
 急流中人遲退休 급류 속에 있으며 辭職이 더디다 하네.  
 猩袍日晚學士班 성포 입은 학사의 반열에 해가 저물고  
 驚夢雲空漁父舟 백로 꿈꾸는 雲空에 어부의 배리로다.  
 平沙十里雨霽後 평평한 십리 모랫가에 비 갠 후  
 回笑三秋蓼月幽 三秋에 蓼月の 그윽함이 도리어 우습구나.  
 江湖清趣我豈無 강호의 맑은 흥취 난들 어찌 없겠나만  
 只緣天庭恩禮優 단지 天庭의 恩禮가 두텁기 때문이네.  
 微臣縱之一字補 보잘것없는 신하 비록 一字 도움도 없지만  
 聖恩看同夔契儔 聖上께오선 기와 설 같은 이로 보시네.  
 邦謨珍重納言地 나라 살림 꾀하는 진중한 納言의 처지라  
 是以東華吾久留 이렇기에 나는 東華에 오래 머무나니  
 歸來一計泛泛計 돌아가 강호에 떠다닐 계획은  
 庶待邦家餘債酬 바라건대 나라에 남은 빚 갚는 걸 기다려서.

<聖恩歌答江湖白鷗 성은가에 답하는 강호의 백구><sup>8)</sup>

鄭澈이 그토록 추구하였던 自然에의 歸依를 막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나라에 남은 빛’이 있어서이다. 나라에 진 빛이란 다름 아닌 聖恩이고, 이 성은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鄭澈의 忠心인 것이요, 戀君之心인 것이다. 이러한 忠心이 鄭澈을 끊임없이 현실 속에 잡아두었던 것이다.

鄭澈은 交遊詩를 많이 창작하였다. 交遊詩는 漢詩 文學의 독특한 특징으로써, 여타의 文學과 달리 漢詩는 개인 대 개인간의 교유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漢詩는 순수한 서정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발로에서만 詩歌 창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贈을 위하여 창작되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sup>9)</sup>

다른 이에게 시를 주는 것은 漢詩 작가에게 있어서 특별한 交遊임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당시 다른 사람의 시를 얻어 간직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인물이 시의 題材가 되거나, 아니면 贈與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두 사람의 특별한 關係를 反證하는 일이다.

鄭澈의 交遊詩는 먼저 양에 있어서도 방대하고, 대상의 폭에 있어서도 다른 작가에서는 그 由來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넓다. 먼저 전체 760여 수의 작품 중 300여 수가 交遊詩에 해당하며 이 작품에 登場하는 인물만 170명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를 崔台鎬는 鄭澈이 30여년간의 宦路生活을 한 점, 豪放한 風流, 灑落한 性品 등에서 찾고 있다.<sup>10)</sup>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鄭澈이 특별히 交遊詩를 많이 창작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이다. 鄭澈의 끊임없는 현실 指向意志가 交遊詩를 많이 창작하게 하였다. 鄭澈의 交遊詩를 살펴보면 전체 작품의 折半에 該當하는 138수가 贈答詩이다. 贈答詩歌 交遊詩의 가장 대표적인 類型이니, 절반이라는 양에 있어서는 특별할 것이 없다.

8) 『松江集』 卷一, 別集.

9) 漢詩의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漢詩의 유형별 분류에서는 贈詩라는 하위 분류를 인정하고 있다.

10) 崔台鎬, 앞의 책, 59쪽.

하지만 贈答詩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시에 답하는 次韻의 시와 상대방에게 寄贈하는 시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贈·寄·題·示’ 등의 字가 詩題에 表示되어 있다. 鄭澈의 贈答詩는 次韻詩에 비하여 ‘贈·寄·題·示’ 등의 詩歌 越等히 많다. 이것은 鄭澈이 시를 통한 交遊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別을 主題로 한 詩歌 다른 작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300여 수의 交遊詩 중 送別이 57수, 挽人이 29수로 도합 86수가 別을 主題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 鄭澈에게 만남과 떠남은 항상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鄭澈이 그만큼 別離의 아픔을 크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鄭澈의 交遊詩는 대상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함께 하고 있다. 鄭澈 交遊詩의 가장 많은 대상이 되었던 인물은 평생의 지기였던 金成遠으로서 무려 20수에 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李珣가 15수, 尹景禧가 10수이다. 직접 작품을 통하여 鄭澈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交遊詩의 양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평생의 지기였던 金成遠에 대한 鄭澈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다음 작품을 감상하여 보자.

骨肉爲行路 골육간에도 길을 달리하고  
親朋惑越秦 친한 벗도 혹은 양속이 되나니  
交情保白首 사귀어 늙도록 지키기는  
海內獨斯人 천지에 그대 하나 뿐이네.

<遙寄霞堂主人 金公成遠 멀리 서하당 주인에게 부치다. 金成遠공>11)

鄭澈은 이 작품을 통하여 金成遠에게平生의 변함 없는 벗이 天地에 그대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鄭澈의 金成遠에 대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鄭澈의 交遊詩는 이와 같이 모든 이해 관계를 超脫하여 知音의 友情을 追求한 것이었다. 이러한 友意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 이것이 시인이 추구한 현실 지향의 하나 이지 않는가 생각한다. 앞서 ‘남은 빛’이 현실 속에 鄭澈을 잡아 두었던 것과 같이 이러한 知人이 있었기에 鄭澈은 현실로부터의 超脫을 이루기 어려웠던 것이다.

鄭澈에게는 金成遠과 같은 知音의 友人이 있었고, 또한 李珣와 같은 朋이 있었다. 둘 다 모두 鄭澈에게는 ‘남은 빛’이었던 것이다. 鄭澈과 李珣는 정치적으로 동지이자, 막역한 사이였다. 하지만 鄭澈은 가끔 李珣의 정치적 행보에 불만을 터트리기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詩歌 그러한 鄭澈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君子辭黃閣 군자는 黃閣을 사직하고  
小人秉東銓 소인은 東銓을 쥐었네.  
賢邪進退際 어진이와 간사한 이 나아가고 물러날 제  
副學心恬然 副提學 그대는 태평이구려.

<示栗谷 율곡에게 보이다>12)

이 작품은 鄭澈의 40세 때 작으로 李珣에게 자신의 政見을 매우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자,

11) 『松江集』 卷一, 原集.

12) 『松江集』 卷一, 續集.

李珣의 優柔不斷함을 매섭게 꾸짖는 시이다. 君子와 小人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정치적 정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傍助하는 李珣에게 太平하다는 표현을 써서 군자의 道理를 다하고 있지 않음을 慨歎하는 시이다. 鄭澈과 李珣는 가끔 政見의 衝突도 있었지만, 평생을 같이 한 朋이었다. 오래 사귄수록 경을 더하여 돈독해지는 그러한 사이였다. 鄭澈이 만년에 병에 들었을 때 율곡을 생각하며 지은 시를 보면 그 애뜻함이 切切하다.

經旬一疾臥江干 病이 들어 열흘이나 강가에 누웠더니  
 天宇清霜萬木殘 하늘의 맑은 서린 온갖 나무에 이을었네.  
 秋月迥添江水白 가을달 멀리 비쳐 강물은 희고  
 暮雲高并玉峯寒 저녁 구름 높이 떠 쓸쓸이 玉峯과 어울렸네.  
 自然感舊頻揮涕 자연히 옛 감회에 자주 눈물 나나니  
 爲是懷人獨倚闌 그리운 이 생각에 홀로 난간에 기대었네.  
 霞鷺未應今古異 저녁놀과 따오기는 고금이 다르지 않은데  
 此來贏得客心酸 이 걸음은 스산한 마음만 얻었고야.

<西湖病中憶栗谷 서호의 병중에 율곡을 그리다><sup>13)</sup>

鄭澈과 李珣의 사귀를 군자의 사귀이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朋이 있었기에 鄭澈은 현실로부터의 超脫을 이를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은 鄭澈이 李珣의 죽음을 대하여 쓴 작품이다. 鄭澈의 李珣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수작의 작품이다.

芙蓉出水看天然 물 위로 솟은 연꽃 볼수록 天然하니  
 間氣難逢數百年 수백년에도 만나기 어려운 빼어난 기운이리.  
 天欲我東傳絕學 하늘이 이 나라에 끊어진 학문을 전하려고  
 人生之子紹前賢 이 사람을 낳아서 앞 성현을 잇게 했나니  
 心中剩有環中妙 마음 속엔 環中の 묘리가 넉넉하고  
 目下都無刃下全 눈 아래엔 刃下全牛 전혀 없었네.  
 何處得來何處去 어느 곳에서 왔다가 어느 곳으로 가는가  
 此時相別幾時旋 이제 서로 이별하니 어느 때 돌아올거나.

<挽栗谷 三首 율곡의 만사><sup>14)</sup>

다음은 鄭澈이 尹景禧에게 封贈한 시이다. 그 心想이 秀麗하다.

世分兼交道 세분에다 친교까지 겸했더니  
 蒼茫二十年 창망히도 20년이나 지났구나.  
 殘生各孤露 남은 생이 각각이 고독한 이슬이 되어  
 白首淚雙懸 백발의 두 눈에 눈물만 달렸구나.

13) 『松江集』 卷一, 續集.

14) 『松江集』 卷一, 續集.

<奉贈君會舊契 二首 옛 친구 군회에게 봉증하다><sup>15)</sup>

鄭澈에게 있어서 漢詩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세상과의 交遊이다. 鄭澈은 시를 통하여 연군의 정을 드러내었으며, 憂國의 心情을 피력하였다. 또한 鄭澈은 시를 통하여 朋友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었으며, 시를 통하여 우의를 더욱 敦篤히 하였다. 이와 같이 鄭澈은 현실을 향한 그 指向 意志를 시를 통하여 現實化하였던 것이다.

K C I

---

15) 『松江集』 卷一, 原集.

### Ⅲ. 自然 指向의 詩世界

鄭澈에게 있어서 자연의 의미는 무엇이고, 鄭澈은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여 文學 작품을 창작하였는가는 그의 작품의 意味網을 考察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 鄭澈의 자연 지향의 意志가 당시의 일반 士大夫들이 인식하였던 자연의 의미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작품 속에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鄭澈에게 있어서 자연은 당시의 사대부들이 지향하였던 道學的 자연이 아니라, 莊子가 추구하였던 無爲의 自然이다. 먼저 당시 儒學者들이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보여주는 士大夫들의 自然觀을 安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일종의 관념 속의 자연이다. 사대부들의 학문은 道學위주이기 때문에 山水나 自然景物은 단순한 玩賞의 차원이 아니라, 生長死滅의 理法이 내재된 자연의 소산물로 여겨진다. 특히 도학자들은 자연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사유하므로 관념적, 추상적인 경향을 띠기 쉽다. 그리고 文學 작품 속에서 자연 경관을 묘사할 때도 미학적이기보다는 관념적 혹은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사대부들의 산수文學에 등장하는 자연계의 경물들이 경물 각각의 외형적인 특색과 외재적 요소가 지닌 현상적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더라도, 그 이면에는 늘 ‘理’의 이치를 직관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자연 경물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分殊의 理’를 터득하고자 하는 감상의 태도가 중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언제나 산수 감상에 있어 전제되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잠재하는 세계인식이다. 그래서 산수를 노래한 사대부의 詩歌는 대개 정적이기보다는 지적이고, 미적이기보다는 교화적이라 하겠다.<sup>16)</sup>

이상과 같이 사대부들에게 自然은 道學的의 또 다른 표출이었다. 공자가 말하였던 ‘三人行必有我師焉’<sup>17)</sup>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sup>18)</sup>의 山水가 自然이었던 것이다. 자연은 이와 같이 玩賞의 대상이 아니라 學의 방편이자, 修己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대부들은 자연을 통하여 수기를 이루었고, 또한 이것이 자연을 통한 작품의 창작 동기이자, 內的 形象을 이루었던 것이다.

조선조 사대부들이 자연을 玩賞하고 노래한 데에는 성리학이라는 그들의 哲學的 思惟가 緊密히 관여하고 있었다. 性理學은 한 마디로 인간 心性의 올바른 도리를 探究하고 이를 日常의 行動規範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철학이다. 그래서 性理學을 道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道學은 본시 사악한 기운이 없는 인간의 순수한 심성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이렇듯 순수한 심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은 오직 자연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風流 역시 어떤 식으로든 자연을 媒介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鄭澈 역시 道學을 수기의 本으로 삼았던 儒學者이다. 그러므로 鄭澈에게 있어서도 자연은 항상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었던 것이다. 鄭澈의 풍류는 자연을 본받고자 하는 풍류이며,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삶의 體를 깨닫고, 삶 속에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풍류였던 것이다.

鄭澈에게 있어 自然의 또 다른 의미는 莊子의 <息影論>에 나오는 無爲의 자연이다. 어린 시절 참혹한 가문의 피화를 입었던 鄭澈에게 현실은 ‘꿈’이며, 앞서 살펴보았던 忠心과 交遊

16) 安棼,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研究』, 朝鮮大 博士學位論文, 2000, 155쪽.

17) 論語, 述而.

18) 論語, 擁也.

는 作爲로써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이 그의 자연 지향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屈折된 작용이 현실로부터의 끊임없는 脫出 指向을 부추겼으며, 이것이 鄭澈이 현실 속에서 드러내었던 權力 指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현실 속에서는 屈折되어 나타났던 鄭澈의 세계관이 文學 속에서는 肯定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용이 그의 文學 작품에 道敎的 色彩를 띠게 하였으나, 이 부분은 좀 더 精緻하게 分析하여야 할 문제이다. 鄭澈은 文學 속에서 無意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鄭澈에게 있어서 자연의 二重的 認識은 文學 작품 속에서 현실화되었다. 이것이 鄭澈 文學의 兩面性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崔台鎬는 鄭澈에게 있어서의 자연 인식이 일반 사대부들의 自然觀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깊이 觀照의 세계에 젖기도 하고 또 자연과의 괴리와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자연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세계로 인정하면서도 그 자연과의 친화 물입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그의 자연관은 보다 강력한 현실 지향의 의지에 의하여 통제되어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자연에의 지향과 대립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주된 경향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자연에서의 '정서의 순화'보다는 갈등의 격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sup>19)</sup>

이어서 <水月亭記>를 거론하면서 鄭澈에게 있어서의 자연은 즐기면서도 그에 沒入하여 悠悠自適하는 것이 아니라 葛藤과 苦惱의 愁心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최태호의 지적처럼 鄭澈의 자연관이 사대부들의 일반적 자연관과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는 깊게 同感하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는 意見을 달리하고자 한다.

물론 <水月亭記>는 鄭澈의 자연관을 극명하게 드러낸 글로써 鄭澈의 자연관을 論議할 때는 빠짐없이 言及되는 글이다. 그러한 <水月亭記>는 자연의 맑고도 고요한 흥에 젖는 즐거움과 시국을 근심하고 임금을 그리는 정이 經國濟民의 理念과 處士의 興趣의 調和로 昇華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水月亭記>는 그 내용으로 보아 페르소나의 강력한 개입으로 창작되어진 글이 분명하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작품을 통하여 이 말의 眞僞를 確認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鄭澈에게 있어서 자연의 二重星은 士이나 大夫이냐로 구분되는 出處에 따른 兩面이 아니라 道學에 기초하는가, 無爲에 기초하는 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鄭澈에게 修己의 方便인 道學的 存在로서의 자연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滿天星月酒初醒 별과 달 하늘에 가득한데 술이 갓 깨었네.  
赤葉黃花漾碧亭 붉은 잎과 노란 꽃의 양벽정이여.  
夢裏分明宣政殿 꿈 속에 선정전 선명하니  
玉旒高拱語丁寧 玉旒에 팔짱기고 정녕코 말씀하시네.

<漾碧亭 양벽정><sup>20)</sup>

19) 崔台鎬, 앞의 책, 92쪽.

20) 『松江集』 卷一, 原集.

이 시의 詩想을 보면 붉은 丹楓과 노란 菊花가 어우러진 季節의 風趣에 취하고, 덩달아 기울인 몇 잔 술에 취해 瀟碧亭에 누워 눈을 붙이니 어느새 님이 다가와 나를 보시더니 다감한 말씀을 건넨다. 문득 술이 깨인다. 하늘에는 달빛 가득하고 별빛도 밝다. 님과 만나 나눈 대화가 비록 꿈이었지만 저 밝게 빛나는 달빛·별빛과도 같이 눈에 생생하다는 것이다. 가을 정자에 어린 맑고 고요한 情趣를 노래하면서도, 이를 배경으로 헤어져 있는 님을 그리는 정을 또한 간절하게 담아 내고 있다. 님을 그리는 정이 그처럼 간절하기에, 꿈으로나마 相逢하는 것일 터다. 그리하여 꿈을 깨고 난 후에는 그 그리운 정이 가을의 情趣와 더불어 더욱 哀殘하게 남는 것이리라. 술에 취하여 瀟碧亭에 누워 잠을 청해도 따라다니는 것이 忠誠인 것이다. 이것이 조선 士大夫들의 自然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自然觀이 다음 시에 잘 드러나 있다.

白巖連天起 白巖은 하늘에 닿아 일어나고  
 城川入海遙 城의 냇물은 바다로 들어 아득하나니  
 年年芳草路 해마다 향기로운 풀 길을 따라  
 人度夕陽橋 사람들이 석양의 다리를 지나네.

夕霏生睥睨 저녁 안개 담 위에 솟고  
 春酒滿觥船 봄 술은 큰 술잔에 가득하네.  
 烽火休轉警 烽火의 警報가 멈추었나니  
 王師且壓邊 왕의 군사가 장차 변방을 제압하오리.

<宜月亭 二首 의월정 2수><sup>21)</sup>

鄭澈이 노래한 <宜月亭>이다. ‘夕霏生睥睨하고 春酒滿觥船이라’, ‘年年芳草路요 人度夕陽橋라’ 얼마나 평화로운 풍경인가. 저녁 안개가 담 위에 솟아오르고, 큰 술잔에 봄 술이 가득하며, 향기로운 풀 길을 따라 사람들이 석양의 다리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한가로이 지켜보고 있는 鄭澈의 모습이 눈에 잡히는 것 같다.

하지만 鄭澈은 ‘烽火休轉警하니 王師且壓邊이라’ 하면서 憂國衷情의 士大夫의 理想을 버리지 못한 채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상은 鄭澈의 작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鄭澈의 자연 지향이 일반 사대부들의 道學的 自然觀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斷面들일 것이다. 하지만 鄭澈 자연시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자연 속에서도 항상 현실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類의 작품이 아니다. 철저하게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지향하는 歸去來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鄭澈 自然詩의 또 다른 커다란 흐름을 보기로 하자.

出仕와 歸去來는 모든 사대부들이 안고 있는 共通의 問題이자 關心事였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일은 이른바 사대부로서의 自我를 實現하는 일이었으며, 물러나 田園에 묻혀 생활하는 일 역시 修己의 方便이었다. 刻薄한 現實의 굴레에서 벗어나, 글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며 자연을 벗삼아 心身을 修養하는 등의 悠悠自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 단면이다.

이처럼 歸去來는 사대부로서의 정신적 姿勢와 品位를 維持하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삶에 또 다른 意味와 價値를 賦與하고 追求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 속에서 창작

21) 『松江集』 卷一, 原集.

되어지는 작품이 ‘역군은 이샷다’로 귀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崔珍源은 사대부의 歸去來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렇게 볼 때 歸去來는 완전한 도피는 아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손을 끊고 홀로의 세계에 잠김을 여하히 표방한다 하더라도, 실체는 그렇지 못하고 강호와 현실의 두 세계에 다리를 걸쳤으니, 이렇고서야 어찌 완전한 도피가 될 수 있겠는가. 완전한 도피는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李朝兩班에게 불가능하였다.

...(중략)...

이와 같은 歸去來의 도피를 중국 竹林七賢의 도피에 비교하면 그 성격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竹林七賢의 도피는 無爲를 의지화 하고 放逸을 행동화함으로써 현실을 부정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독자적 세계, 즉 隱遁이다. 그러나 李朝兩班에는 이런 도피가 없다. 그 까닭은 그들은 無爲를 異端으로, 放逸을 頹廢로서 배척한 때문이다.

...(중략)...

李朝 兩班은 歸去來로써 현실을 버렸지만, 그 버림은 대체로 즉흥적이고 안이하였다. 버리는 데서 일어나는 내적갈등이 심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버리는 현실을,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매개로 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버림은 버림에만 그쳤다.<sup>22)</sup>

그러나 鄭澈에게 있어서의 歸去來는 일반 사대부의 歸去來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鄭澈의 歸去來는 政治的 敗北로 認識되었고, 그러한 鄭澈이었기에 더욱 더 현실 지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현실의 탈출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鄭澈의 歸去來는 현실 탈출로, 즉 儒敎 世界의 脫出로 나타나 無爲의 世界, 神仙의 世界를 지향하였던 竹林七賢의 歸去來와 유사하다. 작품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我欲過江去 내 소원 이 강을 건너가서  
直登松鵬山 곧바로 송골산에 올라  
西招華表鶴 관서로 화표주의 학을 불러다가  
相與戲雲間 구름 사이에서 함께 노닐었으면

<統軍亭 통군정><sup>23)</sup>

이 작품은 鄭澈이 33세 때 원접사 朴淳의 종사관이 되어 의주에 있는 統軍亭에 올라 지은 시이다. 鄭澈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무의식 속에는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渴求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華表柱는 宮闕·城郭 등의 出入門에 세운 기둥, 또는 무덤 앞에 세우는 望柱石 따위의 돌기둥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華表柱는 一般名辭가 아니라 ‘고고한 신선의 자태’를 의미한 華表鶴歸의 고사성어를 차용한 화표주이다.

鄭澈은 이 작품 외에도 ‘華表’라는 語彙를 자주 사용하였다. 鄭澈이 설화 속의 인물인 정령위를 깊게 추모하였다는 反證일 것이다. 정령위는 충신도 아니고 뛰어난 시인도 아니다. 설화 속의 정령위가 鄭澈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써 신선이 되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鄭澈의 무의식이 추구하였던 理想郷이었다.

22)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77, 25~33쪽.

23) 『松江集』 卷一, 原集.

月戶 달빛 비치는 집

野鶴招常至 들에 학은 부르면 늘 오건만  
山精喚不應 산에 정기는 불리도 대답이 없네.  
停杯一問月 술잔 멈추고 달에게 한번 묻노니  
豈獨古人會 어찌 옛사람만이 회합 하오리.

蓮池 연못

山中畏逢雨 산중에 비 맞을까 두렵고야.  
淨友也能喧淨友가 능히 떠들어  
漏泄仙家景 신가의 풍경을 누설하느니  
清香滿洞門 맑은 향이 동구에 가득하고나.

假山 가산

巧削神應助 교묘히 깎은 솜씨 신의 도움인듯  
深藏海幾重 바다 겹겹이에 깊이 감추었구나.  
侯門歌吹地 노래하고 피리부는 권세가의 땅이  
爭似此山翁 어찌 이 산 늙은이와 같으리요.

石井 돌샘

天雲何處看 하늘 구름을 어디서 보냐면  
活水方澄井 活水 솟는 모난 맑은 우물 속에서.  
終日自無風 종일토록 절로 바람 없으니  
一塵寧到鏡 어찌 먼지 한점이라도 거울에 닿을거나.

<棲霞堂雜詠金成遠號 四首 서하당잡영(金成遠의 호 4수)><sup>24)</sup>

鄭澈의 대표작 중 하나인 <棲霞堂雜詠 四首>는 선경과 신선의 삶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 속에는 부르면 들의 학이 날아오고, 술잔을 나누며 달과 문답하는 仙界가 펼쳐져 있다. 仙家の 風景 속에서 神仙의 삶을 사는 이가 산 늙은이 金成遠이니 어찌 세상 權勢家の 삶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鄭澈은 이와 같이 星山의 삶을 憧憬하였고, 그 속에서 悠悠自適하는 金成遠의 삶을 신선의 삶에 비교하며, 부러워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담아내었다. 星山별곡에서 노래하고 있는 ‘손이서 주인대려 날오되 그대 권가 하노라’의 심상을 鄭澈의 작품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金成遠의 歸去來는 앞에서 최진원이 언급하였던 일반 사대부의 歸去來와는 차원이 다른 歸去來이다. 李珣가 말하였던 ‘때의 만남과 못 만남이 있을 뿐이다’<sup>25)</sup>의 이 때를 金成遠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金成遠에게 있어서의 출사는 다른 세계였기 때문이다. 金成遠의

24) 『松江集』 卷一, 續集.

25) 李珣, 『東湖問答』, 『栗谷集』 卷十五, 雜著二.

歸去來는 굳이 崔珍源의 표현을 빌리자면 竹林七賢의 歸去來와 유사한 점이 보여진다. 이러한 歸去來를 鄭澈은 그토록 추구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詩歌 이러한 鄭澈의 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何處仙遊集小亭 어느 곳 신선들이 이 작은 정자에 모였던가  
紫霞香霧藥珠城 붉은 놀, 향그런 안개의 예주성이 분명하니  
吹殘玉笛山花落 옥피리 불고나니 산꽃이 떨어지고  
彈罷瑤琴嶺月生 옥거문고 타고나니 산 위로 달이 솟네.  
萬古鳥忙須舉酒 萬古에 새처럼 바빠서 모름지기 술을 드니  
群賢水逝合忘情 못 현자 물처럼 가 버리어 情을 잊을 듯.  
丹丘見說深如海 듣기를 丹丘는 바다처럼 깊다하니  
我欲移家隱姓名 나는 이곳에 집을 옮겨 姓名을 숨기려네

〈槐山挹翠樓次韻示主人 三首 괴산 읍취루에 차운하여  
주인에게 보이다 3수 중 1수〉<sup>26)</sup>

鄭澈이 괴산 읍취루에 오르니 풍경이 항상 꿈속에서 그리던 예주성과 같다. 또한 읍취가 예주를 떠오르게 하고, 괴산과 괴안의 발음이 비슷한데서 괴안국이 떠올라 이 곳은 별지이구나 하는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 예주성은 신선의 궁궐이니 신선이 아니고서는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 鄭澈은 ‘붉은 놀, 향그런 안개의 예주성이 분명하니’에서 드러나듯, 분명히 예주성에서 술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 곳 읍취루가 그토록 갈구하던 선계이지 않은가 하는 심상이 드러나 있다.

鄭澈은 무의식은 이와 같이 항상 탈출로서의 선계지향을 추구하였는데, 특히 鄭澈에게 선계로 인식되었던 곳은 星山이며, 星山의 지우들은 신선으로 비추어졌다. 다음 두 편의 詩歌 각각 선계로서의 星山과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신선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水北山南處處亭 水北 山南이라 곳곳엔 정자인데  
舊遊迢遞武珍城 옛 놀던 무진성은 멀기만 하구나.  
天開瑞石祥龍蜿 서석산이 열리어 상스러운 용이 꿈틀거리고  
地匝長松爽籟生 땅엔 낙락장송 둘러 있어 바람소리이네  
麋鹿未拋青草性 미록이라 靑草 좋아함 못 버리고  
鶴鸞終是碧霄情 곡란이라 끝내 푸른 하늘 그리우니  
從今息影無何有 이제부터 安息 외에 무엇이 있을까마는  
家失形容史失名 집에선 모습 잃고 史錄엔 이름 잃는구나.

〈槐山挹翠樓次韻示主人 三首 괴산 읍취루 운에 차하여  
주인에게 보이다. 3수 중 1수〉<sup>27)</sup>

鄭澈은 〈槐山挹翠樓次韻示主人〉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시를 『松江集』 卷一의 原集과 續集

26) 『松江集』 卷一, 原集.

27) 『松江集』 卷一, 續集.

에 각각 남기고 있다. 그만큼 읍취루가 鄭澈에게 신선이 머무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 중 續集에 수록된 작품을 보면 읍취루에 올라 星山을 회상하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다. 옛 놀던 武珍城이 星山을 가르킴은 主曄의 事實이며, 이 星山이 ‘天開瑞石祥龍蜿 地匪長松爽籟生’하는 곳이다.

鄭澈은 이 선계인 星山으로 항상 돌아가고자 하는 歸去來를 안고 살았던 인물이다. 星山은 鄭澈이 정치적 패배로 인한 실의를 위로해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星山이 가지는 더 커다란 의미는 鄭澈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상향이었던 것이다. 鄭澈에게는 모든 것을 잊고 息影하고 싶은 곳이 星山이었던 것이며, 이 곳이 무위할 수 있는 선계이었던 것이다.

羣仙聯袂訪仙居 여러 신선들이 소매 연하여 仙家를 찾으니  
花發碧桃山雨餘 산 비 지난 후에 벽도화 활짝 피었네.  
勝事於我已無分 좋은 일이란 나에게 나뉘진 게 없으니  
白頭回處意何如 흰 머리 돌릴 때에 내 맘이 어떠했으료.

<聞隣友會棲霞堂以詩先寄 이웃에 친구들이 霞堂에  
모인다는 말을 듣고 시로써 먼저 부치다.<sup>28)</sup>

鄭澈에게 星山은 ‘花發碧桃山雨餘’의 선계이다. 산 비가 내린 후 활짝 핀 벽도화는 星山의 선경을 더욱 신비스럽게 만들고, 이 때를 만나 ‘羣仙聯袂訪仙居’는 것을 보니, 시심이 일지 않을 수 없다. 鄭澈이 羣仙이라 표현하였듯이 星山에 우거하는 많은 시인들이 신선으로 보여졌던 것이다. 鄭澈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星山四仙이라 하여, 星山의 시인들을 신선에 비유하였다.

鄭澈의 자연지향 의지는 이처럼 일반 사대부들이 가졌던 수기와 때를 기다리는 歸去來의 의미 이상을 가졌다. 이러한 鄭澈이었기에 그의 文學 작품은 도교적 색채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鄭澈에게 있어서의 선계는 현실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선계가 아니라, 내적 무의식이 지향하는 무위의 선계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지향 의지가 鄭澈의 작품에서는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鄭澈 文學의 한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鄭澈에게 있어서의 자연은 현실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무의식이 추구하는 息影의 자연이며, 현실로부터의 탈출은 어린 시절 겪었던 참혹한 가문의 피화에서 형성된 무의식의 작용이다.

#### IV. 沒入과 超脫을 통한 省察의 世界

鄭澈의 현실 지향 의지는 끊임없이 현실과의 葛藤을 자아내었고, 자연 지향 의지는 歪曲된 채로 드러나 歸去來와의 乖離를 빚어내었다. 鄭澈은 이러한 葛藤과 乖離를 이겨내는 수단으로 술과 文學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술을 통하여 세상의 시름을 잊고, 文學을 통하여 세상에서 未盡한 자신의 述懷를 드러내었다. 鄭澈의 현실 지향 의지는 한 축이 현실 세계에서 미진한 우국과 연군이 曲盡하게 서술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축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歸去來의 心想이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28) 『松江集』 卷一, 原集.

그러나 文學으로서의 현실 지향과 자연 지향은 곧 虛構의 世界이기에 文學과 現實의 乖離에서 오는 虛脫感을 이겨내기 위하여 또 다른 한 축의 詩作을 하여만 했던 것이다. 현실 지향과 자연 지향으로 탈출하지 못하는 상상의 세계는 이제 내적 추구를 통한 自己 省察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鄭澈이 지향하였던 내면 세계의 추구를 崔台鎬는 述懷詩<sup>29)</sup>로 구분하였다. 崔台鎬는 鄭澈의 漢詩를 내용에 따라 유형 구분을 하였는데, 이것이 유의미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鄭澈의 漢詩 세계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하지만 崔台鎬가 유형 구분을 하면서 述懷詩라는 項目을 마련하였던 것은 직관적으로 鄭澈의 漢詩 세계의 또 다른 축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鄭澈의 漢詩세계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多重 構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이면 하나는 외적 독백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독백이다. 외적 독백은 鄭澈의 지향 의지가 주관을 하여 현실 속으로의 沒入과 超脫하고자 하는 의지를 文學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內的 獨白은 文學을 통한 현실로의 沒入과 超脫이 가지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성찰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詩作이 당연히 그의 漢詩 세계의 한 축을 이루었으며, 崔台鎬는 이를 述懷詩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崔台鎬가 정의하였던 鄭澈의 述懷詩의 특징은 다분히 省察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다음 引用은 述懷詩의 특징이자, 鄭澈이 이러한 시 세계를 열어 갔던 이유이기도 하다.

비로소 그 詩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 그의 詩歌 단순히 즉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랜 고뇌와 갈등의 극복과정을 거쳐 도달한 시인으로서의 치열한 작가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된 것임을 새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가 생애를 통하여 겪어 온 정치현실과 자연에 대한 갈등, 나그넷길 인생의 곤고한 여정, 초년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 그리고 生의 본질적인 순수 무상에 대한 자각 등은 보다 근원적인 인간의 生과 死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그를 더욱 침통하고 심화된 갈등과 고뇌에 쌓이게 하였으며 그러한 心苦의 所懷를 토로한 많은 述懷詩를 낳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文學은 실재하는 삶에 대한 인생의 문제에 더욱 접근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리하여 그는 현실의 삶에 대한 고뇌와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생애를 통하여 추구해 온 戀君과 嗜酒의 세계를 넘어 마침내 시 자체를 지향하여 나아감으로써 詩를 통한 자기구원이라는 치열한 작가의식까지도 이 述懷詩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sup>30)</sup>

鄭澈은 평생토록 술을 즐겨하였다. 鄭澈이 얼마나 술을 즐겼으면 선조가 술잔을 내리면서 정모는 하루에 이 잔으로 한잔씩만 마시라고 했겠는가. 鄭澈이 술을 마신 이유가 다음 시에 드러나 있다.

29) 최태호는 鄭澈의 漢詩를 유형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면서 그 중 하나를 술회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술회시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술회시는 곧 현실이나 자연과의 괴리와 갈등, 삶의 고뇌에서 빚어지는 자신의 소회를 토로한 것이다. 이러한 술회시에서 그는 자아의 깊은 내면세계의 심고와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곧 그의 생애를 통하여 체험한 정치현실과 강호자연에 대한 갈등과 번민, 인생의 비애와 허무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 대한 관조적 성찰을 보이는 가 하면 이러한 고뇌로부터의 초극의지와 나아가 한 시인으로서의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데에까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崔台鎬, 앞의 책, 118쪽).

30) 崔台鎬, 앞의 책, 129쪽.

問君何以未斷酒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하여 술을 못끊나.  
 楚國秋天霜月苦 楚國의 가을 하늘 서릿달이 괴로워라.  
 蘆洲水落鴈影孤 노주에 물이 빠지고 기러기 그림자 외로운데  
 千里秦城隔湘浦 천리의 秦城은 상포와 막혔고나.  
 佳人相憶不相見 佳人을 그러도 보지 못하니  
 風雨千林獨閉戶 비바람 이는 천 숲에 홀로 문 닫았네.

<未斷酒 술을 끊지 못하다><sup>31)</sup>

鄭澈이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문답하고 있는 시이다. 鄭澈은 楚國의 屈原이 어떻게 삶을 마쳤는가 스스로 묻고 있다. 현실 속에서의 정치적 패배, 이러한 이유로 경제계 민의 이념이 더 이상 실현될 수 없음을 ‘千里秦城隔湘浦’라는 시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千里秦城隔湘浦’로 인하여 ‘佳人相憶不相見’하니 어찌 술을 마시지 않겠냐는 것이다. 鄭澈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현실과의 갈등을 잊고자 하는 마음이며, 屈原과 비유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楚國의 屈原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신 역시 현실이라는 커다란 세계를 어찌할 수 없으니 ‘風雨千林獨閉戶’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鄭澈은 ‘風雨千林獨閉戶’ 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음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요, 이러한 괴리가 현실을 수용하는 自我 省察로 이어져 작품이 되고 있는 것이다. 鄭澈은 현실과의 갈등을 애써 잊고자 하는 마음으로 술을 즐겼다면, 적극적으로 현실 속에서 갈등을 풀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작품을 남겼다.

問君何以已斷酒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하여 술을 끊었나.  
 酒中有妙吾不知 술 속에 묘리 있다지만 나는 모르리.  
 自丙辰年至辛巳 병진년에서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朝朝暮暮金屈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술 마셨지만  
 至今未下心中城 지금껏 마음 속 愁城을 깨지 못했나니  
 酒中有妙吾不知 술 속에 묘리 있다지만 나는 모르리.

<已斷酒 이미 술을 끊다><sup>32)</sup>

鄭澈은 이 작품에서 술을 끊었다고 말하나, 이것은 文學적 상상력이 작용한 것이지 현실 세계에서 鄭澈이 술을 끊었다는 것은 아니다.<sup>33)</sup> 병진년에서 신사년까지 매일 술을 마셨으니, 21세 때부터 46세 되던 해이다. 이 말 역시 한 평생 술을 마셨지만 술이 마음속의 愁城을 깨지 못하니 무엇하러 술을 마셔야 하는가라는 歎息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누구 못지 않게 술을 마셨지만 술 속의 妙理를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아둔함이 아니라 술 속에는 妙理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술을 통하여 현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니,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31) 『松江集』卷一, 原集.

32) 『松江集』卷一, 原集.

33) 鄭澈은 술로 인하여 가끔 실수를 하였고, 이 때문에 여러 차례 단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이단주를 술을 끊고 난 후의 술회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다.

다음의 七言古詩는 鄭澈이 가지고 있던 현실 지향과 자연 지향이 아우러져 내적 성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작 중 하나이다.

江天杳杳江日遲 江天 아득아득 강 해는 더딘데  
 江流鏡淨無纖瑕 강물은 거울같이 맑아 작은 티끌조차 없구나  
 孤舟身世別甲子 외로운 배 신세 甲子도 이별하니  
 水國處處皆吾家 水國의 곳곳이 모두 내 집이네.  
 黃庭一部酒一尊 황정경 한 부에 술 한동이라  
 適我所適經年華 내 가고 싶은 곳 다니며 세월을 보내어라.  
 朱衣聯璧白鷗驚 朱衣의 聯璧에 백구가 돌리고  
 面是故人相矜嗟 얼굴 보니 故人이라 서로 嗟歎하네.  
 仙凡相去風馬牛 仙人과 凡人이 風馬牛처럼 서로 떨어져 있네  
 子從何處來歸些 그대는 어느 곳으로부터 여기에 이르렀는가.  
 云余俱是集賢士 나를 이르기엔 모두들 집현전 학사로  
 手捧象笏頭烏紗 손에는 상홀 들고 머리엔 오사모 쓰며  
 含香日趨玉皇前 향 머금고 날마다 玉皇前에 나아가  
 天語咫尺殊恩加 天語 지척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데  
 君胡爲乎寂寞濱 君은 어찌하여 寂寞한 물가에  
 時遇大行猶龍蛇 大行할 때를 만나 오히려 龍蛇가 되셨는가.  
 悠然不答莞爾笑 유연히 대답 않고 빙그레 웃으며  
 引取瓦甌斟流霞 항아리 끌어안고 流霞酒 부어 마시네.  
 流霞斟罷意更閒 유하주 마시고 나니 뜻이야 다시 한가하여  
 詩中字字皆天葩 시 속에 글자글자 모두가 천파로다.  
 塵寰局束釣船寬 塵世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낚싯배 널찍하니  
 莫以有涯窮無涯 有涯로써 無涯를 다하라 마르시길.  
 薪窮火傳醉夢酣 삶이 다하면 불이 전하여 취한 꿈이 달더니  
 灰寒金鼎餘丹砂 재 식은 금 솥엔 丹砂만 남았네.  
 危如蹈刃險陟山 위태롭게 칼날 밟듯 험하게 산을 오르니  
 後車不復懲前車 앞수레의 懲戒를 뒷수레가 따르지 못해라.  
 君胡爲乎膏火中 君은 어찌 膏火 속에  
 角上蠻觸徒紛拏 蝸角 위의 만과 촉의 다툼되었나.  
 飛廉戢威息纖繡 飛廉이 위엄 거두고 섬광이 그치니  
 馮夷窟宅恬無譁 馮夷의 굴집은 고요하여 시끄러움 없네.  
 來無所戀去無逐 그리운 바 없이 오고 쫓던 바 없이 가니  
 暮泊清渭朝三巴 저녁엔 맑은 渭水 아침엔 三巴  
 津無所問歧不泣 나루를 물을 까닭 없고 갈림길에서도 아니 우니  
 千里誰遣毫釐差 천리길에 조금의 차이라도 누가 남기리.  
 金波安處趁明月 金波 편안한 곳에 明月이 쫓고  
 錦浪靜時隨桃花 錦浪 고요할 때에 桃花가 따르네.

隨身琴酒共一篷 몸예 딸린 거문고랑 술을 거룻배에 함께 실었으니  
 物外伴侶惟魚蝦 物外的 짝일랑 고기와 새우 뿐.  
 功名富貴是何物 功名과 부귀- 이게 무엇인고  
 千駟萬鍾君莫誇 천수레(千駟馬) 만녹봉(萬鍾祿)도 그대 자랑 마려.  
 此身縱榮此心病 이 몸이야 비록 영화롭다지만 이 마음은 병 들었나니  
 鬢髮不禁吹鬢絲 머리칼, 귀밑머리 바람에 헝클어짐을 금하지 못해라.  
 何如天外樂天放 天外的 자연스런 삶의 즐거움 어떠한지  
 閱盡世界沙復沙 온 세상 다 겪고나니 모래에다 다시 모래네.  
 須臾酒盡忽回棹 잠깐 사이 술이 다하여 문득 노를 돌리니  
 水鳥依依山日斜 물새는 아른아른 산 해에 비끼었네.  
 天長水闊不知處 하늘은 깊고 물은 넓어 어느곳인지 모르나니  
 鶴上之仙非子耶 학을 탄 신선이 그대가 아니신지.

<小風波處便爲家 集仙仙客問生涯, 買得漁舟度歲華, 案有黃庭尊 有酒, 少風波處便爲家 風波 적은 곳을  
 곧 집으로 삼다(집선의 선객에게 생애를 물었더니 고깃배 사서 세월을 보낸다하네. 책상에는 황정경 있고  
 술잔에는 술이 있나니. 풍파 적은 곳을 곧 집으로 삼다)><sup>34)</sup>

鄭澈의 <小風波處便爲家> 現實에 대한 강한 不定과 歸去來에 대한 강한 肯定이 드러나 있  
 는 작품으로 보이나 이렇게 解釋하는 것은 速斷으로 보인다. 작품의 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  
 보면 현실에 대한 부정도 귀거래에 대한 긍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鄭澈 자신의 지나온 삶  
 에 대한 깊은 성찰이 들어있을 뿐이다.

이 작품은 ‘仙凡相去風馬牛 子從何處來歸些’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屈原의 <漁父辭>와  
 같이 선인과 범인이 우연히 만나 문답을 주고받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屈原의  
 <漁父辭>가 세상의 혼탁과 그에 어우르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한 것이라면, <小風波處便爲  
 家>는 세상에는 혼신을 다하여 취할 것도 없으나, 그러한 삶이 그른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무위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함 역시 취하나, 취하지 않나 다 동일한 의미라고  
 노래하고 있다.

鄭澈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功名富貴是何物 千駟萬鍾君莫誇 此身縱榮此心病’이라 노래하  
 며 공명과 부귀가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토록 추구하였던 현실이 다 心病이  
 니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라는 자탄이 들어 있다. 또한 ‘何如天外樂天放 閱盡世界沙復沙’라  
 는 시구를 통하여 자연 속의 즐거운 삶 역시 허무할 뿐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깊게 성찰하고 있다.

결국은 詩題인 <小風波處便爲家>하는 것이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風波 적은 곳에서 家  
 를 이루고 싶다는 말은 지금 이루었던 家의 不定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便의 의미로  
 보아 그럴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니 결국 삶이라는 것은 자신만이 判  
 斷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으로 歸結되고 있다.

이러한 超脫의 美學은 自己省察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작품에서 그 心想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名利場中足是非 名利를 찾는 곳엔 시비 가득하니

34) 『松江集』 卷一, 別集.

百憂叢裏鬢毛稀 백가지 근심 모두 모여 귀밑머리 성글었네.  
何妨犀帶更韋帶犀帶를 韋帶로 고친들 어찌하리,  
欲把朱衣換白衣 朱衣를 白衣로 바꾸고도 싶거늘.  
節序逢春懷杳杳 계절은 봄이 되야 회포 아득아득한데  
簾櫳到曉月依依 발 드리운 창가엔 새벽 되어 달빛이 어슬어슬 하구나.  
人間何事何人意 人間의 어느 일이 어찌 사람의 뜻이리.  
草綠江南歸未歸 풀 푸른 강남을 가려는지 못가려는지

<次梧陰示韻 二首 오음이 보여준 운에 차하다><sup>35)</sup>

이 시는 梧陰의 시에 차운한 시라는 것을 시제로 알 수 있다. 오음은 윤두수의 호이니 鄭澈의 평생 지우 중의 하나이다. 鄭澈은 명리를 찾아 평생을 살아왔는데, 시비만 가득했고, 백가지 근심이 귀밑머리만 성글게 하였다고 自歎하고 있다. 그러므로 犀帶를 韋帶로 고친들, 朱衣를 白衣로 바꾼들 무슨 상관이었나며 삶을 달관하고 있다. 이러한 달관은 자아성찰의 산물으로써, 인간의 어느 일이 사람의 뜻으로 되겠냐는 시구에 이르러서는 초탈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鄭澈이 시를 창작하는 행위는 지향하는 세계와 현실의 間隙에서 오는 葛藤을 작품 속에서 克復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기 解消의 카타르시스를 經驗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것이 自己省察의 또 다른 측면인 것이다. 鄭澈의 이러한 詩作 行爲를 金均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송강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초기 체험에 의해 형성된 현실지향의지로 인한 내적 갈등을 극복해주는 것이란 바로 그의 시작 행위이니 그의 시 창작은 곧 자기 구제의 행위이며, 그의 시는 자기 구제의 文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시인치고 자기 구제의 文學활동을 하지 않는 이가 있으리오마는 특히 송강의 경우 송강의 漢詩의 세계는 바로 자기의 현실 체험에 의해 자아가 세계와의 갈등을 시의 세계에서 드러내 보임으로써 해소해 나가고 있음이 두드러 진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鄭澈은 이와 같이 文學을 修己의 한 方便으로 생각하였으며, 文學을 통하여 自己救援을 해나갔던 것이다. 鄭澈은 現實과의 乖離에서 오는 葛藤을 現實로의 沒入과 超脫을 통하여 克復하고자 하였으나, 여기에서 오는 끊임없는 心苦가 그를 괴롭혔으며 自我 省察을 要求하게 되었다. 이러한 삶으로부터 出發한 그의 漢詩 世界는 沒入과 超脫의 衝動과 調和를 이루어 내는 自己 救援의 文學을 形成하게 한 것이다.

## V. 結論

鄭澈 漢詩 文學의 특성을 把握하기 위하여 作品의 主題를 中心으로 한 類型 分析을 試圖하여 作品이 指向하는 세계에 대한 認識을 分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先學들의 研究 成果를 繼承하여 作品의 내적 지향에 따른 類型別 分析을 시도하고, 이를 통하여 鄭澈의 漢詩

35) 『松江集』 卷一, 原集.

36) 金均泰, 「鄭松江 漢詩 研究」, 『松江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3, 403쪽.

가 추구하는 시 세계에 대한 인식을 考察하였다.

鄭澈의 漢詩 世界는 먼저 現實 指向의 意志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作品群을 形成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보았다. 이것은 垂直的 側面에서 忠으로, 水平的 側面에서 交遊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지향은 그 의지가 너무 過度하게 드러남으로써 文學外的 側面에서의 無意識의 影響을 함께 考察하였다.

鄭澈의 自然 指向 의지 역시 歸去來와 仙界라는 두 개의 軸에서 考察되어야 함을 밝혀보았다. 조선조 사대부 일반의 때를 기다리는 歸去來處가 보이지 않음으로서 鄭澈의 自然 指向 意志는 處士文學의 性格은 論議될 수 있으나, 江湖文學의 性格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보았다.

강력한 權力意志와 仙界 追求의 현실 脫出 意志는 끊임없이 內的 葛藤을 일으키며 그의 文學世界를 擴張시켜 나갔으며, 그의 內的 獨白은 자기 救援의 文學, 자기 省察의 문학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밝혀 보았다.

K C I

## 참고 문헌

- 金甲起, 『松江鄭澈研究』, 二友出版社, 1985.
- 金均泰, 『鄭松江漢詩研究』, 『松江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3.
- 金善子, 『松江 鄭澈의 詩歌研究』, 圓光大 博士論文, 1993, 61면.
- 金成基, 『松江의 自然觀』, 『古詩歌研究』 제2·3합집,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 金周坤, 『松江文學에 나타난 自然觀 研究』, 『대구어문논총』 6, 1988.
- 金周漢, 『松江의 生涯』, 『古詩歌研究』 제2·3합집, 韓國古詩歌文學會, 1995.
- 徐首生, 『松江文學研究』, 『韓國詩歌研究』, 螢雪出版社, 1970.
- 安 畚,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研究』, 朝鮮大學校 博士論文, 2000.
- 俞睿根, 『松江鄭澈文學研究』, 慶熙大 博士論文, 1985.
- 李丙疇, 『松江·孤山 文學論』, 二友出版社, 1979.
- 최상은, 『松江歌辭에 있어서의 自然과 現實』, 『모산학보』 4·5, 1993.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77.
- 崔台鎬, 『松江文學論考』, 亦樂, 2000.
- 줄 고, 『松江鄭澈詩文學研究』, 朝鮮大學校 博士論文, 2003.
- \_\_\_\_\_, 『鄭澈 時調의 文學的 特性 研究』, 『古詩歌研究』 제12집, 韓國古詩歌文學會, 2003.
- \_\_\_\_\_, 『星山別曲의 表現 特性 研究』, 『無等山圈 고시가 문학연구』, 혼 출판, 2002.
- \_\_\_\_\_, 『鄭澈 研究』, 『人文科學研究』 21집, 朝鮮大學校 人文學研究所, 1999.

<논문투고일 : 2004.6.30. 심사완료일 : 2004.7.31. 게재확정일 : 2004.8.13>

<Abstract>

A Study on Idea for World Jeong Cheol's Hansi

Kim, Jin-wook

One states that loyalty of Jeong cheol is reflected not only in broad mind and magnanimity but also in delicacy and pathetics. But this paper divides these instances and reveals a phenomenon and a cause. Paragraph Two observes an idea for nature of Jeong cheol reflected in his works, which is divided into that for ethical nature to be used for the method to improve his mind and that for nature of ease to escape into outer world and reveals that nature of place wait for an opportunity, the most general one in Chosun dynasty, is rarely expressed in Jeong cheol's literature. Like this, this paper presents that two utmost literary worlds coexist in Jeong cheol's literature and insist that this keeps the tenseness of Jeong cheol's literature.

An idea for nature of Jeong cheol reflected in his works, which is divided into that for ethical nature to be used for the method to improve his mind and that for nature of ease to escape into outer world and reveals that nature of place wait for an opportunity, the most general one in Chosun dynasty, is rarely expressed in Jeong cheol's literature. Like this, this paper presents that two utmost literary worlds coexist in Jeong cheol's literature and insist that this keeps the tenseness of Jeong cheol's literature.

This paper observes the overall Hansi of Jeong cheol and treats the world that Jeong cheol had an inclination toward. And this paper inquires into realistically oriented intention, which is divide into vertical side and horizontal onse. Especailly, this paper concentrates upon how idea for nature of Jeong cheol is expressed in Hansi.

Key words : Jeong cheol's literature, idea for nature, Hansi